

본회 총무,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규선

서평: 기술시대의 윤리

Ethics in an Age of Technology, Ian Barbour, Haper, 1993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을 서로 연관시키려는 (또는 각각의 관점으로 부터 다른 것을 바라보려는) 일에 비교적 성공해온 이안 바버(Ian Barbour)는 백과사전적 지식과 성숙한 통찰력을 가지고 기술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 철학 및 종교와 인간 및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고,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인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세가지의 전제 및 배경 아래에서 저술하였다 : 1) 효율 과 생산성은 추구할 만한 목표들이지만 작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하는 사람의 참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세계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3)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연구자의 50% 이상, 연구비의 25% 이상이 무기에 관련된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이 책은 총3부 9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부 '충돌되는 가치관'에서는 기술에 관한 견해, 인간의 가치, 환경의 가치 등을 다루고 2부 '결정적인 기술'에서는 농업, 에너지 그리고 컴퓨터 등을 다루며 3부 '기술과 미래'는 가공할 힘, 기술의 조절 그리고 새로운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술에 관한

대중되는 윤리 및 전제를 다름에 있어서, 저자는 정의(justice), 참여의 자유 및 경제 발전이라는 세가지 사회적 가치관을 언급하면서 '자원의 유지', '환경의 보존' 및 '모든 생물의 존중이라는 환경 원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자원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류에게 필요한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로 농업기술, 에너지기술, 유전공학 및 컴퓨터의 사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정의에 입각하여 가진 자들의 양보와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을 주장하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소규모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선호하며, 유전공학 및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의미있는 삶의 추구하고 개인생활의 불침해 및 경제발전의 기여라는 등의 복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적당한 기술로 노동집약적이고 단순하며 지역적 통제가 가능한 중 소규모의 기술을 선호하고, 개인의 삶의 방식이 소비일변도가 아닌 검소하고 단순한 삶의 형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하나뿐인 행성지구 위에 정의롭고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치적인 참여를 통한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자매서인 '과학시대의 종교(Religion in an Age of Science)'에 비해 논란의 여지를 적게 남기고 있으며 일관성있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아마도 저자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에너지, 농업, 유전공학, 컴퓨터)의 내용은 상술하지 않고, 단지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누구도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인 듯 싶다(다른 점들은 언급되지 않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가 인간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 경제논리가 정의와 평등 그리고 이웃 및 다가올 세대에 대한 사랑이라는 지고한 인간 본연의 심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교육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날 여러 형태의 교육의 실태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둘째, 저자는 부인하겠지만, 그의 논리는 제1세계의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어 제3세계에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점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테면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생존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인 경우가 많다. 가진 자들이 보다 나은 안락함을 위해,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고도의 기술들을 적용시키려 한다면 제3세계에 속한 자들은 거의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저자도 짧게 언급했지만, 대규모의 자본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문제이지만, 대규모의 기술이 야기할 잠재적 피해를 너무 과장하는 듯 하다.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핵융합발전의 경우, 그 사안의 중요성(환경과 에너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다루어져 차라리 언급하지 않은 만도 못한 셈이 되었다. 어쨌든 필자는 정치, 경제, 과학(공학을 포함해서), 종교 및 철학 등에 관련된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자신이 큰 기계의 한 부속품이 된 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리고 무식한 신념이 자신과 이웃을 틀 속에다 집어넣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아니 이렇게나 많은가?!'라고 묻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